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전혜정¹ · 이가연²

동아대학교병원¹, 동아대학교 간호학과²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of Vietnamese Immigrant Workers in Korea

Jeon, Hye Jeong¹ · Lee, Ga Eon²

¹Dong-A University Hospital, Busan

²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of Vietnamese immigrant workers in Korea. **Methods:** The subjects were 230 Vietnamese immigrant workers residing legally in B or K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2, 2014 to August 3, 2014, an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ASW 21.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was 2.91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 according to whether to have a religion, the number of homeland friends, and Korean language skill. The average depression level of the subjects was 15.3 and the level was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whether to have a religion, the number of homeland friends, salary, working hours, and Korean language skill.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pression were acculturative stress and the number of homeland friend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was acculturative stress. **Conclusion:** This result shows the necessity of various programs to diminish acculturative stress to control the depression of immigrant workers.

Key Words: Immigrants, Acculturation, Depress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체방편으로 외국 출신 근로자들을 대거 유입하여 산업현장에서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그 수가 54만 명에 달하고 있다[1]. 이들 근로자들 중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은 한

국제 중국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한국계 중국인과는 달리 동남아시아에서 온 베트남계 근로자들은 외모나 언어, 문화 등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어 우리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3].

이주민들이 본국이 아닌 이주하는 새로운 나라의 사회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한다[4]. 이는 난민이나 이주자에게서 나

주요어: 외국인 근로자, 문화적응, 우울

Corresponding author: Lee, Ga Eon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32 Daesingongwon-ro, Seo-gu, Busan 602-714, Korea.

Tel: +82-51-240-2885, Fax: +82-51-240-2920, E-mail: gelee@da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전혜정의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Dong-A University.

Received: Sep 25, 2015 | Revised: Dec 4, 2015 | Accepted: Dec 17,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타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개념에서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을 확장시킨 개념으로서[5], 이주국가에서의 차별, 언어문제, 지지체계의 상실과 실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고립감과 소외감[6]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주민으로서의 스트레스뿐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스트레스도 있어 이중적인 압박감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출신국가에 대한 편견, 피부색, 용모와 언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차별, 자국과 다른 작업방식,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어려움과 경제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7,8] 또한 이들은 결혼이민자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통합정책에서 배제되며, 특히 고용시장에의 진입이나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9]. 더불어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적대감, 불확실성, 정체성의 혼란 및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10], 대표적으로 우울증상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11]. 근로자의 우울은 결국 사회생활 및 직장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12] 나아가 개인적인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지속될 경우 결근,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인 손실에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13]. 따라서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는 그들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볼 수 있기에[10,11] 이들 두 변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개별 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만을 다룬 연구[8,14]와 사회적 지지[7,15] 및 정신건강[16-18]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 국가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국적별 근로자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출신 국가별 근로자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연구는 그 취약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대응 방안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확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그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B시와 K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230명이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 베트남어로 번역된 도구를 읽고 이해하며, 설문이 가능한 자
-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자료 조사에 동의한 자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할 경우에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10개로 계산할 때, 172명이 산출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높은 탈락률을 고려하여 235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설문지 작성을 중도 포기하거나 답변이 불충분한 5명을 제외하여 최종 대상자 수는 230명이었다.

3. 자료수집

1) 도구의 변안 과정

도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및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구는 Cho[19]가 사용한 베트남어판을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어와 베트남어에 능숙한 베트남인 2인에게 감수를 받아 사용하였다. 그 외 도구는 일차적으로 위의 2인에게 번역 및 역번역을 시행하여 2인간의 일치도가 96%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에 유학 온 베트남 대학생 1인과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설문 내용의 이해 여부와 문항의 난이도 등을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B시와 K시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가톨릭 이주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대상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주말마다 진행되는 상담 시간이나 예배시간 이후에 수행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7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각 기관의 베트남인 대표자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경우 연구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와 각 기관의 베트남인 대표와 함께 대상자를 직접 면대면 방식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모호한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설명한 후 베트남 대표가 통역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2-1040709-AB-N-01-201405-HR-04-01)을 받았으며, 자료조사를 시작하기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절차, 자료처리의 익명성, 비밀유지를 설명하고 자의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과 설문지 작성 중에도 중단 또는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설문결과는 연구 종료와 함께 폐기 될 것을 알렸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5. 연구도구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Sandhu와 Asrabadi[20]가 미국에 거주하는 타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36문항 중 Cho[19]가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 요인의 25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향수병 3문항, 의사소통의 어려움 4문항, 문화충격 4문항, 편견·차별 5문항, 직장에서의 어려움 5문항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Cho[19]가 자신의 연구에서 실제로 사용한 도구는 25개 문항을 요인 분석한 4개 요인의 18개 문항이었다. 요인에는 문화충격, 지각된 차별감,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포함되었으며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은 문화충격에 포함시켰으며, 편견·차별 요인은 지각된 차별감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향수병 요인은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5개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였다.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40~.81이었다.

2) 우울

우울은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을 Cho와 Kim[21]이 수정 번역한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하였던 우울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상의 빈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3개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ho와 Kim[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3)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 년수, 결혼상태, 종교, 거

주기간, 동거가족, 모국인 친구 수, 직장 내 외국인 근로자 수, 근무 형태, 이직 횟수, 월급, 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휴무일, 한국어 능력의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PASW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이때, 일반적 특성 중 종교, 모국인 친구 수, 주 평균 근무시간과 한국어 능력은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77.83%, 여자가 22.17%였으며, 평균 연령은 29.9세였다. 교육기간은 평균 12.45년으로 12년 이하가 73.91%, 13년 이상이 26.09%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60.43%, 기혼이 39.57%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69.13%, 없는 경우가 30.87%였다. 거주기간은 평균 48.88개월로서 36개월 이하가 30.43%, 37개월 이상 48개월 이하가 32.61%, 49개월 이상이 36.96%였다. 동거가족은 모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가 47.39%, 혼자 26.96%, 타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4.35%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모국인 친구 수는 11명 이상이 45.22%, 10명 이하가 54.78%였으며, 평균 16.81명이었다. 직장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명 이하가 61.30%, 11명 이상 20명 이하가 25.22%, 21명 이상이 13.48%였으며 평균 12.13명이었다. 근무 형태는 주간 근무가 68.28%, 교대 근무가 24.67%였다. 이직 횟수는 평균 2.79회였으며, 1회 이하가 46.52%로 가장 많았으며, 월급은 월평균 177.72만원으로 151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64.35%로 가장 많았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60시간 이하가 67.83%였으며, 월 평균 휴무일은 평균 4.18일이었으며, 3~4일이 67.83%로 가장 많았다. 한국어 능력의 평균점수는 10.63 ± 2.54 점이었으며, 부족하다고 응답한 자가 34.78%, 보통이라고 한

경우는 65.22%였다(Table 1).

2.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2.91 ± 0.41 점이었고, 영역별로는 향수병이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충격, 차별·편견, 직장에서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순이었다. 대상자의 우울 평균 점수는 15.33 ± 7.32 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는 종교, 모국인 친구 수와 한국어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t=2.63, p=.009$). 모국인 친구 수는 10명 이하군이 11명 이상군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t=2.38, p=.018$). 한국어 능력은 부족한 군이 보통 군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t=3.86, p<.001$).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우울에서는 종교, 모국인 친구 수, 월 급여, 주 평균 근무 시간과 한국어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t=2.39, p=.018$). 모국인 친구의 수가 10명 이하군이 11명 이상군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t=3.33, p<.001$). 월 급여가 150만원 이하를 받는 대상자가 200만원 이상을 받는 대상자 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t=5.78, p=.004$). 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이하군이 61시간 이상군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t=2.32, p=.021$).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보통의 경우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t=2.88, p=.004$)(Table 3).

4.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관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49$ ($p<.001$)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에서 우울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종교, 모국인 친구 수, 월 급여, 주 평균 근무시간,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 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179 (77.83)	
	Female	51 (22.17)	
Age (year)	≤ 29	113 (49.13)	29.9±4.32
	30~34	85 (36.96)	
	≥ 35	32 (13.91)	
Education (year)	≤ 12	170 (73.91)	12.45±1.61
	≥ 13	60 (26.09)	
Marital status	Married	91 (39.57)	
	None	139 (60.43)	
Religion	Have	159 (69.13)	
	None	71 (30.87)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months)	≤ 36	70 (30.43)	48.88±24.79
	37~48	75 (32.61)	
	≥ 49	85 (36.96)	
Living status	Alone	62 (26.96)	
	Foreigners	33 (14.35)	
	Vietnamese	109 (47.39)	
	Others	26 (11.30)	
Number of homeland friends (n)	≤ 10	126 (54.78)	16.81±17.47
	≥ 11	104 (45.22)	
Immigrant workers in company (n)	≤ 10	141 (61.30)	12.13±11.74
	11~20	58 (25.22)	
	≥ 21	31 (13.48)	
Type of shift	Day	155 (68.28)	
	Shift	56 (24.67)	
	Others	16 (7.05)	
Frequency of transfer job	≤ 1	107 (46.52)	2.79±1.44
	2	52 (22.61)	
	3	40 (17.39)	
	≥ 4	31 (13.48)	
Monthly income (10,000 won)	≤ 150	62 (26.96)	177.72±31.70
	151~200	148 (64.35)	
	≥ 201	20 (8.70)	
Working hours/week	≤ 60	156 (67.83)	
	≥ 61	74 (32.17)	
Off day/month	≤ 2	30 (13.04)	4.18±1.50
	3~4	156 (67.83)	
	5~6	24 (10.43)	
	≥ 7	20 (8.70)	
Korean ability	Poor (4~10)	80 (34.78)	10.63±2.54
	Moderate (11~20)	150 (65.22)	

트레스를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84~0.96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3~1.18로 10을 넘지 않았다. 또한 오차의 자기 상

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D=2.06으로 2에 가까워 오차항 간에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어 다중회귀 분석을 하기에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입력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우울에 대한 회귀

Table 2. Degree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N=230)

Variables	M±SD
Acculturative Stress	2.91±0.41
Homesickness	3.26±0.69
The difficulty of communicating	3.10±0.66
Cultural shock	2.80±0.57
Prejudice/discrimination	2.79±0.75
Difficulties in the workplace	2.85±0.45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66±0.50
Depression	15.33±7.32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3.53, p<.001$), 모델의 설명력은 28%였다.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41, p<.001$)였으며, 다음으로 모국인 친구 수($\beta=.13, p=.022$)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91점이었다. 문항 수는 다르지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Cho[19]의 연구에서는 2.87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점수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Lee 등[7]의 연구결과에서 2.52점과 Kim과 Kim[14]의 2.54점과 비교해 보면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Lee 등[7]과 Kim과 Kim[14]의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대부분 중국 조선족으로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비슷한 외모를 지니고 있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보다 점수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도구는 다르지만 Kim[8]의 연구결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가 별로 한국사회의 적응도가 차이가 있었으며,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사회의 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보였으며 필리핀 출신이 가장 적응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출신국가와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어, 베트남과 같이 사회문화적응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에서 이주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입국 초기에 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별로는 향수병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Lee 등[7]과 Kim과 Kim[14]의 연구에서도 향수병이 가장 높았으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Ahn와 Cho[22]의 연구에서도 향수병이 가장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한국 생활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다고 본다. 따라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향수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지지 방안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종교 여부, 모국인 친구 수와 한국어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 종교 여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7]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교와 문화적응 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드물 뿐 아니라, 또한 대상자의 출신국가를 한정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라서 종교와 문화적응간의 차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종교가 있는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이유는 종교를 가진 근로자들이 특근이나 휴일 근무로 인해 자신의 종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함과 모국에서의 종교가 한국 종교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추후 베트남 출신국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와 문화적응간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모국인 친구 수가 적은 경우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 모국인 친구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Lee 등[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국의 동료와 함께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 이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 먼저 정착한 모국인 친구들을 접촉할 수 있는 전략과 자국의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Kim[8]의 연구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상자의 우울은 15.3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

Table 3. Difference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Scheffé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89±0,41	1,16	14,90±7,04	1,68	
	Female	2,97±0,40	(,248)	16,84±8,12	(,095)	
Age (year)	≤ 29	2,94±0,37	2,44	16,05±7,62	1,53	
	30~34	2,93±0,44	(,089)	15,02±7,08	(,218)	
	≥ 35	2,77±0,42		13,59±6,74		
Education (year)	≤ 12	2,93±0,39	0,87	15,83±7,68	1,75	
	≥ 13	2,87±0,45	(,384)	13,92±6,03	(,082)	
Marital status	Married	2,85±0,42	1,84	14,70±6,89	1,05	
	None	2,95±0,39	(,067)	15,74±7,59	(,294)	
Religion	Have	2,96±0,41	2,63	16,09±7,00	2,39	
	None	2,81±0,39	(,009)	13,62±7,77	(,018)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month)	≤ 36	2,97±0,44	1,07	14,91±6,47	0,22	
	37~48	2,91±0,36	(,346)	15,31±7,71	(,805)	
	≥ 49	2,87±0,42		15,69±7,69		
Living status	Alone	2,95±0,44	1,75	16,94±7,12	1,53	
	Foreigners	2,91±0,38	(,157)	14,45±6,79	(,206)	
	Vietnamese	2,86±0,41		14,61±7,69		
	Others	3,05±0,32		15,65±6,54		
Number of homeland friends (n)	≤ 10	2,97±0,42	2,38	16,76±7,37	3,33	
	≥ 11	2,84±0,38	(,018)	13,60±6,91	(<,001)	
Immigrant workers in company (n)	≤ 10	2,94±0,40	2,00	15,75±7,35	0,79	
	11~20	2,91±0,39	(,138)	14,31±7,06	(,453)	
	≥ 21	2,78±0,47		15,32±7,70		
Type of shift	Day	2,92±0,39	0,08	15,44±7,28	0,12	
	Shift	2,90±0,42	(,922)	15,13±7,08	(,883)	
	Others	2,92±0,52		14,56±8,85		
Frequency of transfer job	≤ 1	2,87±0,41	1,03	14,49±6,81	0,96	
	2	2,96±0,42	(,380)	15,96±7,67	(,414)	
	3	2,98±0,41		16,48±8,05		
	≥ 4	2,90±0,38		15,71±7,48		
Monthly income (10,000 won)	≤ 150 ^a	2,98±0,44	1,11	17,39±7,61	5,78	a > b > c
	151~200 ^b	2,89±0,40	(,333)	15,01±7,15	(,004)	
	≥ 201 ^c	2,87±0,33		11,35±5,77		
Working hours/week	≤ 60	2,93±0,42	0,88	16,10±7,40	2,32	
	≥ 61	2,88±0,37	(,379)	13,72±6,92	(,021)	
Off day/month	≤ 2	2,85±0,39	1,46	12,70±8,15	2,54	
	3~4	2,92±0,41	(,227)	15,90±7,06	(,057)	
	5~6	3,04±0,38		16,75±7,15		
	≥ 7	2,81±0,40		13,15±7,38		
Korean ability	Poor	3,05±0,35	3,86	16,90±8,77	2,88	
	Moderate	2,84±0,42	(<,001)	13,64±7,82	(,004)	

a, b, c: Scheffé test.

Table 4. Correla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N=230)

Variables	Acculturative stress r (p)
Depression	,49 (<,001)

[23]의 연구에서 16.1점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약간 낮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근로자인데 비해 Lee[23]의 연구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of the Subjects

(N=230)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Constant)		-7.75	4.99		-1.55	.122
Religion	Have None (ref.)	1.84	1.02	.10	1.80	.073
Number of homeland friends	≤ 10 ≥ 11 (ref.)	2.23	0.97	.13	2.31	.022
Monthly income (10,000 won)		-0.26	0.16	-.10	-1.63	.105
Working hours/weeks	≤ 60 ≥ 61 (ref.)	1.45	1.06	.08	1.36	.175
Korean ability	Moderate (11~20) Poor (4~10) (ref.)	-1.15	1.02	-.07	-1.13	.258
Acculturative stress		8.39	1.22	.41	6.90	< .001
Adj. R^2 = .28, F = 13.53, p < .001						

Ref=Reference group.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Ha와 Kim[24]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 점수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종교와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모국인 친구 수가 적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은 것은 모국인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며[3],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우울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25]. 이러한 결과는 자국민의 지지망은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여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아 베트남 출신외국인 모국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월급이 적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은 것은 제조업 남성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월급이 적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으로 송금 및 취업비용을 만회하고자 경제적인 압박감[7] 자신의 경제활동이 생존과 직결되므로 월급을 적게 받을수록 우울할 수 있다고 파악된다. 주 평균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은 것은 Lee[23]의 연구에서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특수성이 시간의 여유보다는 노동의 시간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경제적 이득이 우울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8]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모국인 친구 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트남계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새로운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베트남계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이 익숙해질 때까지 멘토 제도와 같은 직장 생활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현장실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국인 친구 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모국인은 한국 생활의 문제와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아, 적응과정의 초기 단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에 Bae와 Park[27]이 제시하였듯이 모국인 자조집단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베트남계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모국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선행연구

구[7,14]에서는 향수병에 대한 요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Cho[19]의 연구에서는 향수병 요인의 문항들이 요인분석에서 제외되어 18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Lee 등[7]과 Kim과 Kim[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구는 Sandhu와 Asrabadi[20]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구 36개 문항에서 인종 및 피부색과 관련된 2개 문항을 제외한 34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연구마다 요인과 문항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구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외국도구를 사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과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적 배타주의가 강하기에[8] 외국인들이 독특하게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내용을 반영한 도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출신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수행된 점에 비해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추후 출신국가별 근로자들의 건강증진방안에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몇 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만을 한정하여 조사하였기에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B와 K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230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모국인 친구 수였으며,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였다. 따라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변수로 확인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모국공동체를 활용한 실무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특성을

반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보다 확대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Immigration policy statistics reports [Internet]. Gwacheon: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2014 [cited 2014 March 4]. Available from: http://www.corrections.go.kr/doc_html/attach/imm/f2014/20140219185877_4_1.hwp.files/Sections1.html
2.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n foreign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immigrant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3 [cited 2014 March 4]. Available from: http://kosis.kr/customStatis/customStatis_01List.jsp#jsClick
3. Lee JW. Social relation of foreign workers in Korea: Focusing on friendship relations.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005;27(3):75-90.
4. Hovey JD, Magaña CG. Psychosocial predictors of anxiety among immigrant mexican migrant farmworker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002;8(3):274-289. <http://dx.doi.org/10.1037/1099-9809.8.3.274>
5. Williams CL, Berry JW.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The American Psychologist. 1991;46(6):632-641. <http://dx.doi.org/10.1037/0003-066X.46.6.632>
6. Berry JW.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05;29(6):697-712. <http://dx.doi.org/10.1016/j.ijintrel.2005.07.013>
7. Lee SH, Lee YJ, Kim SY, Kim SJ.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in migrant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9;39(6):899-910. <http://dx.doi.org/10.4040/jkan.2009.39.6.899>
8. Kim YL.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Discourse 201. 2008;11(2):103-138.
9. Kim TS. Consideration of exclusion aspects for foreigners: Mainly foreigners and Korean defectors and returning home.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2009;9(2):305-326.
10. Hovey JD, King CA.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96;35(9):1183-1192. <http://dx.doi.org/10.1097/00004583-199609000-00016>
11. Oh YJ, Koeske GF, Sales E.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02;142(4):511-526. <http://dx.doi.org/10.1080/00224540209603915>

12. Lee HK, Sohn MS, Choi MK.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mong workers by socio-economic factors, health behaviors, and characteristics of work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13;30(5):125-138.
<http://dx.doi.org/10.14367/kjhep.2013.30.5.125>
13. Yang YJ, Shin SH.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family stress on depression of middle-aged couples: Analysis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4;23(2):60-69.
<http://dx.doi.org/10.12934/jkpmhn.2014.23.2.60>
14. Kim SH, Kim SH. Foreign workers' acculturative stress in Korea socie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8):3832-3842.
<http://dx.doi.org/10.5762/KAIS.2013.14.8.3832>
15. Kim HM, Kim SH.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 migrant workers and contributing factors: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08;30:78-100.
16. Kim HS.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migrant workers' depression and anxiety: Focused on undocumented workers in Maseok, Gyeonggi-do.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06. 107 p.
17. Lee IS.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migrant workers' mental health: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4. 84 p.
18. Yang OK, Park HK, Sohn GH. A study on the effects of mental health among migrant workers in Korea.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0;35(1):141-175.
19. Cho IY.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in foreign migrant workers on their anxiety speaking Korean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10. 155 p.
20. Sandhu DS, Asrabadi BR.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1994;75(1):435-438.
21. Cho MJ, Kim KH.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 (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1993;32(3):381-399.
22. Ahn JH, Cho JH. Psychosocial and cultural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in the Chungcheongnam-do area of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11;32:137-176.
23. Lee KO. The effects of status of residence and occupational stress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migrant workers [master's thesis]. [Suwon]: Ajou University; 2013. 94 p.
24. Ha JY, Kim YJ.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3;19(4):254-264.
<http://dx.doi.org/10.4069/kjwhn.2013.19.4.254>
25. Kuo WH, Tsai YM. Social networking, hardiness and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6;27(2):133-149.
26. Kim JK, Kim JE, Moon DH. Effect of occupational stress and sleep quality on depression among male immigrant workers manufacturing industry,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2;22(3):244-256.
27. Bae JY, Park HJ. Depression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Korean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0;19(1):67-75.
<http://dx.doi.org/10.12934/jkpmhn.2010.19.1.67>